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inese Student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and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김 종 원¹⁾, 김 은 정^{2)*}

(Kim JongWeon and Kim EunJung)

요 약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시장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주요한 학생 구성원이 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본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대학생활 적응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소재 4년제 D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PLS(Partial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요인인 교수 요인과 교직원의 관심정도는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요인인 향수병은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도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적 요인, 정서적 요인

Abstract The landscape of the education market is changing. As part of efforts to deal with the decrease of a school-age population in Korea,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are endeavoring to attract foreign students. Chinese students, the largest share of foreig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re becoming an important element at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Chinese students face various kinds of difficulties while trying to cope with new environments in the count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academic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Chinese students on the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it. Data on 128 Chinese students attending D University located in Busan were collected and a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artial least squares (PLS) regressio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fessors as an academic factor and the level of interest of university staff

* Coressponding Author: eunjung@deu.ac.kr

Manuscript received August 10, 2019 / revised August 22,
2019 / accepted August 23, 2019

1)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제1저자

2)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신저자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hil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Second, homesickness as a psychological factor is correlated to the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ith significance while acculturative stress is not correlated to it. Third, the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s correlated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Chinese students in Korea,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Academic factor, Psychological factor

1. 서 론

글로벌 환경에서 각 나라의 문화·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1].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시장의 모습 또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대학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교육시장의 개방, 등록금 동결,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같은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무한 경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재정적 어려움의 극복과 대학의 국제화로 세계 여러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한국에 우호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교류 협력 인사 배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2-3].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이 커지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월 교육부 자료 기준 한국 내 유학생의 수는 총 142,205명이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68,537명으로 가장 많은 48.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한·중 양국 수교 이후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어학연수 또는 대학진학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은 지리적 근접성, 역사, 한류 열풍의 부상, 한국정부와 한국 내 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및 홍보, 중급 고등교육 시장의 수급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게 되었다[4]. 하지만 단기간에 급증한 외국인 유학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시 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 중도 탈락률의 증가와 학업 중단 후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5]. 유학생 증가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

국인 유치 대학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문대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 유학생 중단률이 3~4배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대학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0%~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6].

국내 지방 사립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실질적인 동기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내용 자체보다는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지표에 해당되는 외국인 학생 수를 증가시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거나 대학 재정의 충당을 위함일 수도 있다. 지방 소재 몇몇 사립대학은 위기를 극복하거나 생존전략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들 대학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교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이미지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동기는 대학 재정 충당에 있기도 하다. 이들 대학의 경우 중국에 있는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중국인 유학생 관련 센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중국 문화교류와 중국인 유학생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중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본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향수병, 언어문제, 재정문제, 사회적응 문제, 개인의 역할이나 갈등 등의 문제들과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7].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주요한 학생 구성원이 되고 있으며, 대학의 재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이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유학의 목적인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학업 문제에 있어 대학기관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며 유학생 개인적 차원의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5].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수와 제반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은 대학생 개인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8]. 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와 만족도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학령 인구감소에 대비해 대학 재정을 안정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과 확보, 대학 경쟁력 향상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중국인 유학생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주체이자 교육 소비자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음은 물론 다른 국가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유학생 수의 증가가 한국 유입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저렴한 유학경비도 중국 유학생을 유인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을 것이다.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함께 한류 열풍도 중국 유학생이 한국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권의 다른 국가들에서 한국을 찾는 유학생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학생 규모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유학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유학생들의 차별 경험, 우울증 등 정서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 국가의 경쟁력 관점에서 유치확대와 관련된 정책 연구, 유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의 지속성을 조장하기 위한 연구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3].

본 연구에서의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정의 학업 목표에 전념하는 재한 중국인들을 의미한다.

2.2 대학생활 적응도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응이라 할 수 있다. 적응(Adaptation)이란 인간이 물리적·사회경제적·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관용하여 그에 반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내포한다. Baker and Siryk[14]는 대학생활 적응을 유학생들이 대학사회에서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학업,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5-17].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적응을 평가할 때 대학생활 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이다[18].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는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지니며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9].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 적응도는 학교에서 하는 일을 즐기는 정도, 학교생활이 자신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학교에서의 활동들에 대해 긍정적인지 등으로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에

서 요구되는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2.3 대학생활 만족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재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20].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대학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다니고있는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을 의미한다[21].

대학생활 만족도는 해당 대학에 대한 선호 및 중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 및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22].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하여 중국인 유학생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얻어지는 주관적인 감정 또는 태도 정도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우수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할 직원, 서비스, 인간관계 등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23]. 따라서 학생들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만족뿐만 아니라 환경, 직원과의 관계들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다양한 요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사회적 평판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지금의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재학 중인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학생복지제도와 행정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교직원들의 친절도 및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 학습기반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만족하는 정도 등을 의미한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유학생들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내용에 적응하여야 하는 학업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과 관

련된 사회적 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서적 적응 등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24].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적 성취 및 인성발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선행연구로부터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도출하였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국내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 요인(교수 요인, 교직원의 관심정도, 한국어 구사 능력)과 정서적 요인(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향수병)이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여러 가지 환경 및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수의 전문성, 수업방식, 교수의 학생지도 등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25]. Lee et al.[26]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교수의 강의, 교수의 학생지도 등의 질적 제고에 지금보다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정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강의를 듣고 있는 교수들이 대체로 마음에 드는 정도 등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 요인 만큼 직접적인 학업요인은 아니지만, 학사행정, 유학생 담당 교직원, 도서관 및 사서 서비스 등에서의 교직원의 관심은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중요한 학업적 요인이다[26].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중국인 유학생의 의사소통 문제, 행정절차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키도록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지 여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 재학중인 대학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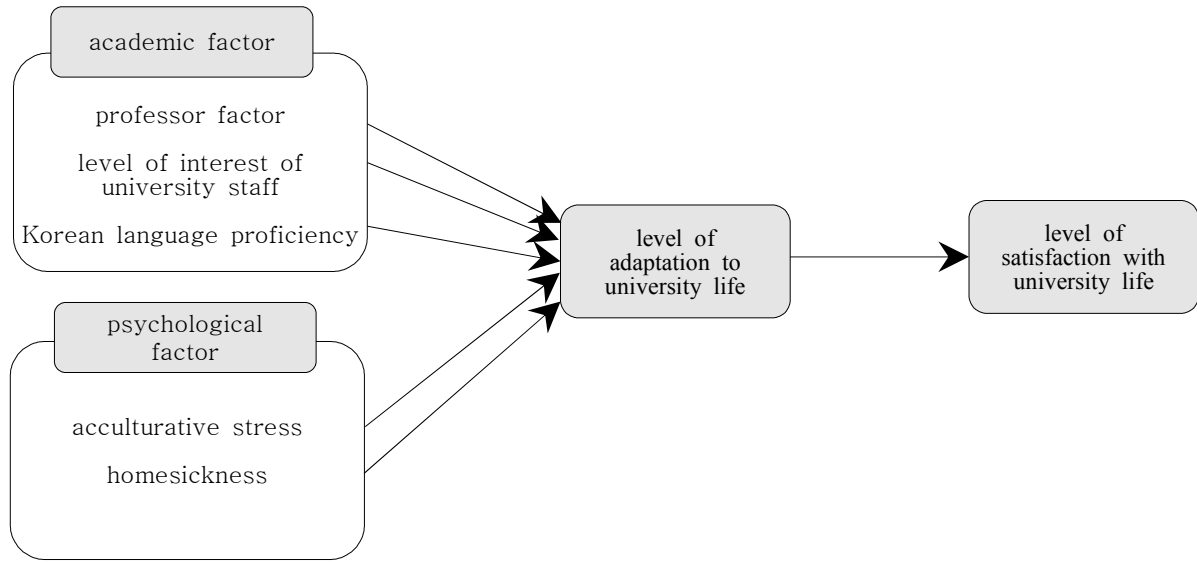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와의 면담, 수강신청 및 변경, 수업 진행에 있어 중국인 유학생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어 구사 능력 요인이다[28-29].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도구이자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언어능력은 학업을 유지하고 지속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말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 상황에 맞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한국말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정도,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정도, 한국인과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에 자신 있는 정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커다란 영

향을 줄 것이다[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 교수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교직원의 관심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 내에서 학업적 요인에 따른 심리적 부담,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 갈등, 향수병, 편견, 차별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19, 31]. 외국인 유학생들이 익숙한 문화와 관습 및 생활양식을 벗어나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을 문화적응이라 하며, 문화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 사회적 고립, 지각된 적대감, 지각된 차별감 등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17, 32].

Berry[33]는 대학생활 적응을 개인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 등으로 구분하였다.

Yu[27]은 새로운 환경이 주는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서의 대학 생활 적응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한국인 동료, 선후배들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34-35].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6-37].

Hwang[38]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부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이 겪게 되는 차별감, 적대감, 문화적 충격 등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이해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유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한 정도,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픈 정도,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않을 때 속상한 정도, 자신이 가진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위축됨을 느끼는 정도가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낮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유학생은 한국에서 외로움과 소외, 우울, 향수병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39]. 가족을 떠나 외로움과 가족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두려움과 같은 경험은 불안의 커다란 원천이 된다. Lee et al.[26]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중국 현지인을 그리워하는 정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후회하는 정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향수병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4 :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중국인 유학생의 향수병은 대학생활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은 그 자체로서 고등교육에 있어 중요한 결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대학 생활 적응이 또 다른 대학 생활의 주요한 결과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학생들이 그들의 환경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만족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활 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학업적, 정서적 적응은 대학에 대한 애착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1].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소재 4년제 D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2019년 2월 20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3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 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통역을 통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참여시 누락 응답과 중복 응답을 차단하고자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는 128명으로 일반적인 경로분석 설문응답 방식에서 사용되는 200개 표본보다 적은 수의 설문조사 결과가 수집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D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전체인원이 200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응답 표본은 200개 보다 작은 표본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모델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s)를 사용하였다. PLS 통계기법은 측정 모형 및 구조적 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다른 통계기법보다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에 대한 요구사항이 비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52명(40.63%), 여성이 76명(59.38%)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15명(11.72%), 2학년 22명(17.19%), 3학년이 23명(17.97%), 4학년이 15명(11.72%), 대학원생이 53명(41.41%)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이 57명(44.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년~2년 미만이 32명(25.00%), 2년 이상~3년 미만이 20명(15.63%), 4년 이상이 15명(11.72%), 3년 이상~4년 미만이 4명(3.1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구사능력은 초급 수준이 74명(57.81%), 중급수준이 42명(32.81%), 고급수준이 12명(9.38%)로 나타났다. 거주지로는 기숙사가 93명(72.66%)로 가장 많았으며, 자취가 25명(19.53), 기타가 6명(4.69%), 하숙이 4명(3.13%)로 나타났다.

4.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위하여 SmartPLS 3의 Bootstrapping 500회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신뢰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타당성 측정에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집중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 변수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Table 3과 같이 29개의 항목들에 대한 요인적재량 값이 모두 0.7을 상회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40-42].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공근이 0.831 이상이고, 그 값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n=128)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Unit:event)	Weight (Unit:%)
sex	male	52	40.63%
	female	76	59.38%
Grade	1 st year students	15	11.72%
	2 nd year students	22	17.19%
	3 rd year students	23	17.97%
	4 th year students	15	11.72%
	postgraduate students	53	41.41%
Duration of stay	less than 1 year	57	44.53%
	1 year to less than 2 years	32	25.00%
	2 years to less than 3 years	20	15.63%
	3 years to less than 4 years	4	3.13%
	4 years or more	15	11.72%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asic level	74	57.81%
	intermediate level	42	32.81%
	advanced level	12	9.38%
Residence	dormitory	93	72.66%
	tented house	25	19.53%
	boarding house	4	3.13%
	other	6	4.69%

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또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Cronbach's α 와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Table 3과 같이 Cronbach's α 가 0.7이상[43-44], CR이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 0.5 기준[45]을 모두 충족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professor factor	level of interest of university staff	acculturative stress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homesickness
professor factor	0.914						
level of interest of university staff	0.595	0.831					
acculturative stress	-0.492	-0.524	0.837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0.643	0.704	-0.492	0.842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0.602	0.668	-0.470	0.769	0.943		
korean language proficiency	0.106	-0.002	0.106	-0.056	-0.124	0.865	
homesickness	-0.523	-0.513	0.725	-0.594	-0.597	0.050	0.878

* Square root of AVE shown in bold (diagonal)

4.4 연구가설의 검정

Table 4의 가설검증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 요인인 교수 요인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H1]은 채택되었다($\beta=0.264, p<0.05$). [H2]의 교직원의 관심 정도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beta=0.407, p<0.05$). 반면 학업적 요인인 한국어 구사 능력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beta=-0.148, p<0.05$).

정서적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인 [H4]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beta=0.264, p<0.05$).

외국인 유학생들이 처음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은 문화적 충격이라 하였다[46]. 문화적응이 삶을 유지해 가는 개인의 힘을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삶의 확장으로 오히려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32]. 문화충격 이론은 타 문화에 체류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47]. 먼저, 새로운 문화를 만나서 황홀, 감탄, 여정을 느끼는 첫 번째 시기인 밀월 단계는 우호적인 단계이다.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좌

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을 느끼는 위기단계이며, 세 번째 회복단계는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지는 적응단계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를 나타냈다[48].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거주 기간 중 초기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시기, 높은 언어 구사력, 다원주의 사회가치관, 높은 교육수준,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이주, 접촉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접촉과의 적절한 조화와 사회적 지지, 성별, 체류 기간, 학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체류 기간, 성별, 학년 등의 다양한 표본들이 분포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표본을 활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향수병이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5]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beta=-0.342, p<0.05$).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적응도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에 대한 [H6]은 채택되었다($\beta=0.769, p<0.05$).

Table 3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Measurement Model

Variable	Item	Path Coefficients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VIF
professor factor	professor factor 1	0.900	0.902	0.939	0.836	2.956
	professor factor 2	0.939				3.387
	professor factor 3	0.903				2.539
level of interest of university staff	university staff 1	0.733	0.887	0.918	0.691	1.645
	university staff 2	0.862				2.595
	university staff 3	0.856				2.627
	university staff 4	0.845				2.286
	university staff 5	0.852				2.467
korean language proficiency	korean language 1	0.825	0.947	0.947	0.748	4.562
	korean language 2	0.786				4.939
	korean language 3	0.925				3.442
	korean language 4	0.933				4.916
	korean language 5	0.887				3.959
	korean language 6	0.823				3.807
acculturative stress	acculturative stress 1	0.822	0.858	0.903	0.700	1.921
	acculturative stress 2	0.807				1.926
	acculturative stress 3	0.872				2.296
	acculturative stress 4	0.844				2.020
homesickness	homesickness 1	0.939	0.720	0.870	0.771	1.464
	homesickness 2	0.813				1.464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level of adaptation 1	0.945	0.938	0.960	0.889	4.357
	level of adaptation 2	0.947				4.625
	level of adaptation 3	0.936				3.675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level of satisfaction 1	0.901	60.918	0.936	0.709	4.590
	level of satisfaction 2	0.880				4.505
	level of satisfaction 3	0.894				3.515
	level of satisfaction 4	0.780				1.981
	level of satisfaction 5	0.801				2.585
	level of satisfaction 6	0.788				2.428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 생활 적응과 대학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 소재 4년제 D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업적 요인인 교수 요인과 교직원의 관심 정도는 대학 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대학 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

	Path		Factor Loadings	S.E	T-value	P-value	Results	
H1	professor factor	→	0.264	0.070	3.771	0.000	Accepted	
H2	level of interest of university staff	→	0.407	0.089	4.556	0.000	Accepted	
H3	korean language proficiency	→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0.148	0.109	1.362	0.174	Rejected
H4	acculturative stress	→	0.137	0.088	1.548	0.122	Rejected	
H5	homesickness	→	-0.342	0.102	3.363	0.001	Accepted	
H6	level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0.769	0.038	20.143	0.000	Accepted

둘째, 정서적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 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수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은 대학의 경우처럼 부산 소재 4년제 D대학에서도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과도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부모 등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적응도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소재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에 보다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교수요인, 교직원의 관심정도, 향수병 요인이 주요하게 나타나 이들 요인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구사능력 문제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 전담 센터의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인 튜터 제도, 정보기술의 발달 등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는 한류열풍과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화,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한국인 및 한국인 재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학문적 가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한국 유학생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방 소재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첫째,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다. 부산 소재 4년제 D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반화할 수 없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지리적으로 넓은 분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특성이 다르며, 지방의 대학들도 대학마다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 및 만족도에는 성별, 지원동기, 지원 방법,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 분석 등의 추가적인 분석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이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과 몽골 유학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국가별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베트남 유학생은 2010년 2,806명에서 2018년 27,061명으로 8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몽골 유학생도 2010년 2,448명에서 2018년 6,76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넷째, 본 연구가 횡단연구로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의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변수들은 모두 자기 보고식 연구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 자기 보고식 측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References

- [1] Wang, J. S., Kang, Y. E., and Lee, S. Y., "Stress and Dietary Behavior by Acculturation Level among Chinese Students Living in Korea,"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 29, No. 1, pp. 42-55, 2019.
- [2] Min, H. J., Ham, J. H., and Lee, W. Y., "A Study on Chinese Students in Adjusting to Korean University Life and Supporting System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 17, No. 3, pp. 371-387, 2013.
- [3] Song, M. H., and Choi, Y. C., "A Study on the School Commitment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of Chinese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3, No. 3, pp. 367-393, 2017.
- [4] Lu, T. S., and Chung, Y. K., "A Study on the Korean-wave Cognitio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Vol. 62, pp. 279-308, 2015.
- [5] Lee, S. Y., "A Study of Chinese Students' Intention to Retain in College: Focusing on Chinese and Korean SNS Use, Social Support,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 27, No. 1, pp. 33-56, 2019.
- [6] Kim, E. S., Han, Y. R., and Kim, H. S., "The Influences of Campus Life and College Educational Services on Chinese Students' Decision to Stay in South Korea," *Humanities*, Vol. 70, pp. 149-176, 2018.
- [7] Lee, S. B., and Chang, S. J., "Exploring Influential Factors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11, No. 1, pp. 258-289, 2011.
- [8] Song, J. A., and Jang, J. S.,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19-144, 2010.
- [9] Park, J. A., "Korean 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0, No. 4, pp. 267-290, 2018.
- [10] Kim, Y. I., "A Study on Debate Class Plans for Foreign Students-Focusing on Activities in the Pre-debate Sta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1, No. 6, pp. 93-133, 2018.
- [11] Park, S. J., Baek, S. H., Gu, B. S., and Lee, T. S., "Utilization of Feedback based Teaching to help Foreign Students who Experience Language Barrier,"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2, No. 6, pp. 119-142, 2018.
- [12] Oh, H. Y., and Lee, Y. H.,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Recognized by Professionals and Psychological Support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3, No. 4, pp. 101-121, 2018.
- [13] Shin, J. Y., Lee, H. S., and Lee, Y. H., "The

-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Field for the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 of the Department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n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3, pp. 325-334, 2018.
- [14] Baker, R. W., and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 [15] Baker, R. W., and Siryk, B.,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16] Park, J. H., and Kim, H. S.,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11, pp. 125-144, 2009.
- [17] Kim, S. K.,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ocial Emotional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Mediat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ength of Stay,” *Social Science Studies*, Vol. 42, No. 2, pp. 127-149, 2018.
- [18] Seo, S. J., and Keum, M. J.,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Type and Adaptation to College with Respect to their Characteristic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3, No. 1, pp. 35-47, 2012.
- [19] Choi, H.-S.,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to Korean Universitie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61, No. 4, pp. 71-94, 2018.
- [20] Kee, Y. H., and Jang, J. H., “Analysing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ith Their Living Environments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hinese Student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Vol. 9, No. 2, pp. 121-143, 2019.
- [21] Kim, M., “A Study on Self-efficacy, College-life Adjustment and College Satisfaction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 12, No. 2, pp. 103-114, 2011.
- [22] Aitken, N. D., “College Student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Retention: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of a Structural Mode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53, No. 1, pp. 32-50, 1982.
- [23] Ha, H. J.,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Satisfaction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M.S. Thesis, Korea University, 2012.
- [24] Kim, B. C., *The Study on Junior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Their College Lives*, M.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0.
- [25] Ha, O.-S., and Shin, N. M., “An Empirical Study on Chinese Students’ Overseas Learning Experiences and Factors affecting Their Attitudes towards Learning at a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26, No. 4, pp. 23-44, 2013.
- [26] Lee, K. S., Bai, S. Y., and Lee, C. H., “The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Acculturation Stres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5, No. 5, pp. 231-264, 2018.
- [27] Yu, J. W., “Accultur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Vol. 34, pp. 245-260, 2013.
- [28] Cervantes, R. C., and Cordova, D., “Life Experiences of Hispanic Adolescents: Developmental and Language Consideration in Acculturation Str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9, No. 3, pp. 336-352, 2011.
- [29] Pan, Y. H., and Lee, S. Y., “A Study about Chinese Students’ Uncertainty toward Korean Culture: Focusing on Uncertainty Reducing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with Acculturation,” *Speech & Communication*, Vol. 17, pp. 140-167, 2012.
- [30] Kim, H. J., Jun, K. H., and Lee, H. K., “Assimilation of Foreigners in Korea: Focusing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Social Network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 Studies, Vol. 40, pp. 105-139, 1997.
- [31] Lewthwaite, M., "A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 19, No. 2, pp. 167-185, 1996.
- [32] Berry, J. W., Kim, U. C., Minde, T., and Mok, D.,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1, No. 3, pp. 491-511, 1987.
- [33]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ion," *Applied Psychology*, Vol. 46, No. 1, pp. 5-34, 1997.
- [34] Lee, H. J., "Determinant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9, No. 2, pp. 183-194, 2011.
- [35] Bertram, D. M., Poulakis, M., Elsasser, B. S., and Kumar, E.,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Development*, Vol. 42, No. 2, pp. 107-124, 2014.
- [36] Lix, X., and Kim, B. K.,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ccultural-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of Chines Students in Korea: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4, No. 3, pp. 55-83, 2016.
- [37] Yoon, S. Y.,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focused on Foreign Students Majoring Tourism at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 15, No. 2, pp. 177-197, 2015.
- [38] Hwang, J. I.,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justment Stres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M.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8.
- [39] Shin, S. H., and Yu, M. M., "A Qualitative Study on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the Chinese Students at a South Korea University,"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 18, No. 2, pp. 45-69, 2014.
- [40] Bagozzi, R. P., and Yi, Y.,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No. 1, pp. 74-94, 1988.
- [41] Kim, E. J., Park, S. J., and Kim, J. W., "A Study on Smartphone Acceptance for th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Information Research*, Vol. 21, No. 4, pp. 79-94, 2016.
- [42] Kim, Y. J., Kim, E. J., and Kim, J. W., "A Study on the Impact of CSV of Delivery Companies on Confidence and Intention to Use Delivery Service: Focused on Senior Parcel Delive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Information Research*, Vol. 22, No. 5, pp. 85-100, 2017.
- [43] Hair, J. F., Wolfinbarger Celsi, M., Money, A., Samouel, P., and Page, M. J., *Essentials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Armonk, NY: Sharpe, 2011.
- [44] Kim, E. J., and Kim, J. W., "A Study on Repurchase Intention for the Products of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Information Research*, Vol. 17, No. 1, pp. 105-115, 2012.
- [45] Fornell, C., and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 [46] Philips, T., Norsworthy, B., Whalin, W. T., and Whalin, T., *The World at Your Door*,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1997.
- [47] Oberg, K.,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Vol. 7, pp. 177-182, 1960.
- [48] Lee, J. S., Koeske G. F., and Sales, E., "Social Support Buffering of Acculc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8, No. 5, pp. 399-414, 2004.



김 종 원 (Kim JongWeon)

- 종신회원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Univ. of Nebraska-Lincoln 경영학석사
- Univ. of Nebraska-Lincoln 경영학박사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SCM, ERP, BSC, CSR, CSV,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김 은 정 (Kim EunJung)

- 종신회원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박사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중소기업의 CSR, CSV, SCM, 핀테크